

毎日経済 (国策版)

2008. 2. 16 (토) 대일경제 (3페이지)

한·일 해저터널 추진 의원원들 연맹 발족

(도쿄 김태영특파원) 한국과 일본을 해저터널로 연결해 열차가 다니도록 하는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일본 조당과 의원연맹이 다음달 발족한다.

자민당이토세이서로전 방위청 장관과 민주당 하토이마 유키오 간사장, 공명당 간지키 다케노리 전 대표 등 중경급 여야 의원들은 15일 오전 일본 국회에서 조당과 의원연맹 발기인 모임을 했다. 이들은 한·일 해저터널 실현을 위해 모든 국회의원에게 참가를 호소하고 다음달 인으로 연맹을 정식 발족시키기로 했다. 한·일 해저터널 무상은 규슈 지방 사기현 가라쓰시에서 이키섬과 쓰시마를 거쳐 부산에 이르는 약 230km를 철도로 연결하는 것으로 해저 부분을 128km가량 터널로 뚫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毎日経済 2008年2月16日 (国際面)

日韓海底トンネルを推進 日本議員らが連盟発足

【東京キム・デミョン特派員】韓国と日本を海底トンネルで結び、列車で行き来できるようにする事業の実現のため、日本の超党派議員連盟が来月発足する。

自民党の衛藤征士郎前防衛庁長官と民主党の鳩山由紀夫幹事長、公明党の神崎武法前代表ら与野党の主要議員らは、15日午前、日本の国会で超党派議員連盟の発起人の集まりをもった。彼らは日韓海底トンネルの実現のため全国会議員に参加を呼びかけ、その翌月内に連盟を正式に発足させることになった。

日韓海底トンネル構想は、九州の地方である佐賀県唐津市から壱岐、対馬を経て、釜山に至る約230Kmを鉄道で結ぶもので、海底部分128Kmほどをトンネル掘削するものと想定している。